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 : 마태 복음 5:17-48

요절 : 마태 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코로나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죄악된 인간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는 온 인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 복음은 온 인류에게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질서가 허물어 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율법도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팔복에 이어진 말씀으로 천국시민으로서의 윤리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윤리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안되겠다고 포기해버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도 온전하라고 다그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17-20)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속해 있으며 팔복다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의 산에 오르신후 계속해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 부류는 일정 일획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모두 폐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는 율법준수론자들과 율법폐기론자들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법조항은 시대가 변하면서 전혀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 시대시대마다 입법했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서 19:19를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 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혼방옷은 입지 않아야 할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주변국가와 구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율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17~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도 고치시고, 38년된 병자도 고쳐주시자 제자들은 율법의 시대가 종식된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17)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채우다’,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밝혀서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강조하여 천자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18) 율법은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19) 당시 랍비들은 신명기 22:6,7절 “새의 둥지에서 어머니새는 잡아가지 말고 새끼새만 잡아가라”는 계명을 제일 작은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작은 계명이라며 버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계명을 피상적으로만 보았을 뿐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율법준수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만약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을까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해서는 안되는일 39가지의 일을 정리해서 지켰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해서 1k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시 간에 준비해서 지키기 위해서 20분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못해 5분이나 10분을 늦으면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텍스트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노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노답입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의롭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의는 율법주의적인 ‘자기의’ 였습니다. 반면 천국의 제자들이 얻게 될 의는 훨씬 더 나은 의였습니다. 그 의는 모세의 율법과 선

말씀을 완성하려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라고 판단하고, 은혜만 누리다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크신 은혜로 의롭다 여김은 받았지만, 이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빌2:1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단지 죄짓지 않고자 소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신과 본래적인 의미를 알고 이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여섯가지 사례를 통해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21-47)

21절부터 시작하는 긴 구절은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어서 613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 하나하나를 모두 지적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십계명과 계명의 말씀 몇개만을 뽑아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제자는 화도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출 20:13,6계명) 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보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굴빈눔)’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동 이전에 미움과 분노,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용인 66번 환자에게 화가 쏟아 졌습니다. 개학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태원 클럽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그로 인해 의료진과 학생들이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됩니까? 형제가 내게 해를 끼칠 때, 내가 형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게 됩니다. ‘내게 그럴 수 있는가?’하여 화를 내고 억울해 하고 분해합니다. 혹은 형제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형제를 무시하고 화를 냅니다. 형제가 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형제를 고쳐주려 하는데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잘 고쳐지지 않을 때도 형제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라가’, ‘굴빈눔’,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감성대로 해 버리고는 “내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야~”라고 성격탓을 합니다. “그땐 내가

좀 욕 했었어”라고 합리화를 하고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상대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피가 줄 줄 흐르고 있는데도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 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자녀에게 있어서 분노는 살인과 같습니다. 오늘날 언어폭력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 의해 언어폭력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에 올라온 악플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말이, 심지어 장난삼아 상대를 무시해서 한 말이 상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요구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함부로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형제에게 분노하고 감성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원망들을 일’은 형제에게 상처를 준 경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형제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 살인죄를 짓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더 중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멈추고 형제를 찾아가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께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말로 상처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과는 얼마나 빨라야 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급히 사화하라”고 하십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급히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그러면 한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과 체면을 비우고 상처받은 영혼을 생각하고 급히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원망들을만한 자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므로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27,28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출 20:14,7계명) 간음은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뒤흔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간음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이 그러하고 솔로몬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으로 간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행위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의 문제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생각은 결국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성과 같습니다. 성을 방비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쳐 들어와 점령하게 됩니다. 마음을 뺏길 때 자기도 모르게 인격과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건강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공부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게 됩니다. 사람의 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은 거룩함과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더이상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즐기고 있는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 할 정도로 가치관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캠퍼스 주변에 있는 원룸들은 버젓이 커플들이 드나듭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만 있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음욕은 점점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조주빈과 그 일당들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 찍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를 유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여 음욕을 즐기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한강에 투신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조주빈은 그것이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스스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체포해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시대 음란의 세력에 대해서 대충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철저하게 진단 검사를 하여 음란의 세력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곳 저곳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 음란이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9,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빼어 내 버리라!’, ‘찍어 내 버리라!’ 문자대로 한다고 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을 뽑고 손을 찍어서라도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와 진다면 좋겠지만 옛말에 “술가락 들 힘만 있어도 바람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잘라내도 음욕이 쉽게 사그라 들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간음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자 몸부림 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옷을 버려두고서라도 뛰쳐 나왔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한번이 아니라 두번 쳐다 본다면 두

번째는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다”한번 보는 것과 두번 보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도님들이 이를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뽑는 대신에 두번째로 보지 않는 결단과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눈을 통해서 정욕 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런 환경을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인터넷이 나오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유해한 것들을 뺏아버려야 합니다. TV가 나를 정욕의 죄에 빠지게 한다면 TV선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팔을 끌고 정욕된 환경으로 이끄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지는 이유는 단호한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호한 사람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시대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죄와 싸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면이 거룩한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째는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됩니다. 31,32절을 보십시오. 당시 율법은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 주도록 규정했습니다.(신 24:1,3)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33-37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레 19:12)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맹세하는 말을 잘합니다. “내가 성을 간다(바꾼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니 아들이다”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평소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도 회개나 겸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 ‘아니오’만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라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악한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38-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 더이상 천국복성으로 못살겠다는 푸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치며 이런 일을 부지기수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마다 손해를 감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시니 무슨 도 닦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동해 복수법을 주신 것은 악순환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악을 막고 악한 자들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선으로 갚을 때 내 안에서 악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악도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43,44절을 보십시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이웃’은 유대인 동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동족들은 끔찍이 사랑했지만 이방인들은 원수로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양희은씨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 수 없지만 옛날에는 예쁜 붓어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붓어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마 너만 없으면 내가 이 연못을 다 차지하고 살 거라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붓어가 물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연못의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긴 줄 알았던 다른 붓어, 자기 혼자 연못에서 잘 살 것 같던 붓어가 썩은 물을 먹게 되자 얼마 뒤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에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남을 미워하고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지만 결국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생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악인과 선인, 내편, 네편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46,47절을 보십시오. 만일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들이 세리나 이방인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문안하면 안 됩니다.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넓혀나가야 합니다. 내양, 우리 교회 양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 다른 교회의 양도 사랑하고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게 잘 못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

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3. 온전하라(48)

마지막 결론입니다. 48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의 자녀들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함(perfect)란 부족함이나 허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순결함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천국의 자녀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완전함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제자가 이 사랑의 목표를 향해 완전함을 향해 나갈 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을 닮는 천국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고자 해보면 볼수록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도, 학교에도,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원수같은 사람,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취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 대회에 나갔습니다. 맞추어야 할 말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임자하고 나를 뭐라 부르지요? 할머니는 ‘원수’라고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할아버지가 그거 아니고 네 글자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원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루 아침에 변화되어 온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천국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내게 잘해 주는 동역자 뿐 아니라 힘들게 하는 동역자도, 착한 양뿐 아니라 애먹이는 양도, 어떤 유형의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하여 반복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완전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완전하게 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의 폭과 넓이가 깊고 넓어지며 우리의 인격과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